

다문화 가족의 자존감 높이기 위한 독서치료적 접근

강은주(충신대학교 교수) 1)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타운의 한 국가 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동네 어귀에나 버스, 전철, 거리, 학교, 음식점, 관공서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은 이제 전혀 낯선 타인이 아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미군과의 국제결혼 이후, 1980년대 산업인력 대체 인구로서의 외국인의 이주, 그리고 1990년 이후 농촌청년의 국제결혼의 붐은 많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양산하여 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공적 적응이 곧 우리나라 소수자들의 성공적 사회적 적응으로의 문제로 직결되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특히 언어와 문화, 교육, 그리고 심리적 자존감 등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과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생존도구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이는 그늘진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이므로 기독 한국의 눈으로서 더욱 주시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현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들의 인성의 중요형성시기인 아동기의 자존감을 살려 그들의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의 독서치료라는 매체를 소개하며 앞으로 진행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이중언어적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다문화 가족의 증가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구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가정과 북한이탈주민가정, 귀화한 이주노동자 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민의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2005년 농촌지역 혼인 건수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문용린, 2008)이며, 2007년 기준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약 60%가 학령전기에 해당하여 그들의 학교적응의 승패는 곧 사회적 적응으로 성공적 연결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높이 시사하고

1) 한국독서치료학회 회장, 마음경영연구소 소장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문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과 성공적 발달이라는 두가지 과제는 항상 이들의 가장 큰 삶의 과제가 되어진다.

이주엄마의 적응의 난제들이 그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학교문화의 이질감과 이방인 취급 및 왕따문제로 연결되어 2005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서도 다문화가정아의 17.6%가 왕따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 주요원인을 외국인 엄마의 존재, 의사소통의 문제, 외모의 차별성 등을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외국인주민은 국내 891,341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8%이며, 전체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미자는 144,385명으로 16.2%를 이루고 있으며 2002년 34,17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추세이다.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자의 수가 90,000명을 넘었고, 그 국적별 분포수가 동북아(중국 조선족, 중국, 일본, 몽골 순), 동남아, 미국, 남부아, 중국아, 러시아,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자녀수도 25,000명을 훨씬 웃도는 통계가 나왔다. 결혼이주자들의 수는 2008년 현재 110만을 넘었고, 2015년 26만 6천명, 2020년에는 35만 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도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도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총 36,204건으로 3.6% 감소(2007년 27,560건, 2008년 26,024건) 하여 2005년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혼인 증감율(-4.6%)에 비해 감소폭 적은 편이었고 (-3.6%)이고 특히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 증감율은 -1.5%에 불과하며,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는 증가(2007년 8.3%, 2008년 8.6%)하여 증감율은 10.5%나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자녀들중 6세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어 6-12세 이하의 아동들이 32.2%를 차지하여 앞으로 학령기에 아동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가정아동들의 학교생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2008년 3월 21일 제정하고 9월 22일 시행해오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생활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유/아동의 보/교육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주자들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점차 개선하면 마련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동안 자랑해왔던 단일민족의 신화를 깨고 바야흐로 다문화국가로서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곽금주, 2008).

2.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

다문화 가족과 자녀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다. 오성배(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교육기회가 매우 열악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부정적이고 정부의 지원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결혼 후에도 한국인으로서의 완전한 법적 지위를 소유하지 못한 채 각종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문제도 직면해야 한다.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러 가지 특면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직면해야한다. 언어의 차이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성 뿐만 아니라 중국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도 상당한 언어차이와 음식차이, 명절문화의 차이 등을 직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계중심의 가족구조의 차이, 경직된 성별분리체계 등과 젠더구조의 차이도 직면해야 한다(김이선 외, 2006). 이들의 문화적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닌 그들의 출신 문화가 비하되거나 무시되어 심리적 위축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로의 동화에 대한 시댁식구들의 강요에 대한 억압도 큰 스트레스로 되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놀림의 대상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의 부담을 혼자 도맡아야 하는 육체적 노동의 부담도 직면해야 한다.

국제결혼가족의 계속적 증가추세에서 이러한 격차는 성장과정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성장과정에서의 누락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을 통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의 특성은 일반가정과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하고 비판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더 거부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자녀에 대한 과제에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성공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일반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유지하고 수용하는 통합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2008).

고유미(2009)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부적응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학업동기, 학교생활적응점수, 단계별 분석에 대한 연구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모친동거, 조부모비동거,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높은 지각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학업동기와의 상관성에 있어서도 목표지향성, 성취가지, 학업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성격특성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사회적지지(친구, 교사, 정서적, 자존감, 물질적지지) 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저학년의 경우 위의 하위요소들이 학교생활적응의 69%, 고학년의 경우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적응의 79%이상을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관련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자아개념,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안, 사회적 기술 등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애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등의 가족적 특성, 교사학생간 성격유형일치도, 교사학생간 의사소통유형, 단짝친구여부, 사회적 지지등의 사회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원체계 존재여부와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특성의 관계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일반적 결과들인데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아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그 상관관계의 폭이 더 깊을 수 있다(강종훈, 2000; 곽경화, 2000; 김경아, 2005; 문은식, 2002; 이옥주, 2003; 정윤주, 2004).

다문화가정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출신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한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아동의 사회심리적 하위인변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한부모가정과 학교폭력피해자, 새터민, 시설아동 등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주, 2008; 정현영, 2006).

이상에서 논의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개인과 가족의 심리정서적 측면, 교육사회적 측면, 국가정책적 측면 등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또한 미시에서 거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가정책적 대책

1) 외국의 사례

가까운 대만의 경우 결혼이민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의 내용에는 차별배제모형에 입간학 동화정책과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의 취업, 신체 안전, 사회복지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개월 이상의 합법적 체류자에게 사회보험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위해 중앙정부에서 다국어 교재편찬 및 보급에 힘쓰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최우선적 진학과 학교에서의 개별지도,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조옥라 외, 2006).

독일의 경우 오랜 1950년대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차례의 정책의 성패를 기반으로 동화모형을 기반으로 한 통합정책을 집행하되 교체순환원칙에 의거한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외국인 과잉 이주를 막기 위한 차등적인 아동보조금과 이주민 가족의 고용제한, 이주민 유입 감소 및 기존 외국이 귀환정책도 함께 시행하며 이주민 통합 정책 중 하나로 본국으로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미리 시험을 치루는 동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박명선, 2006).

미국의 경우 이민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문화다원주의정책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5년 국제결혼 중개업자 규제법을 통해 외국인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결혼상대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부를 송부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개별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면서 상호공존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다문화공존의 제도화를 마련하고 있다(곽준혁, 2007).

일본의 경우 차별배제모형에 입각한 기능실습제를 채택하여 그들의 혈통주의에 따른 귀화제도를 권장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정책 수혜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공민관/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과 지역내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식으로 개명, 사회보장제도 혜택, 입관법 체제하에서 해방 및 참정권을 획득하게 하였고 국제결혼후 일본호적에 혼인신고후 3년 경과시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한다. 언어정책에 있어서 다언어/다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충실히 시행하고 일본어교

육 및 다양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 국내의 사례

국내에는 1950년 미군과의 국제결혼 커플, 1980년의 산업이주민에 이어, 1990년대 농촌총각결혼시키기 등 의 60여년의 국제결혼이주민이 증가하는 오늘날까지의 다문화가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2008년 3월 21일 최초로 제정되고 9월 22일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생활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유/아동의 보/교육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주자들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야 점차 개선되면 마련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외국의 선례를 기초로 국내의 다문화가족의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가 국가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자체에서의 다문화 가족의 실태파악 및 시범적 교육/복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2008)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연구는 결혼이주민의 모국과 상황이 비슷한 대표적 농촌지역으로서의 호남에 정착한 많은 결혼이주민 즉 다문화가족을 위한 동화적 정책과 지원적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다문화사회로서의 전환을 위한 지역 다문화 실태와 지원정책 현황, 해외다문화 사회현상과 다문화정책, 광주지역 다문화사회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취업과 창업,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문화적응방법과 문화교육, 자녀교육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정의 필요와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모선희 외, 2008)에서 이루어진 전국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공포/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센터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도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08-'12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 역시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16개 시도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초등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지원과 학부모 자녀교육역량강화지원 및 다문화 교육기반구축,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700억 예산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부에서는 농촌사회여성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언어소통, 문화차이, 자녀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실시하여 한국어교육, 가족/저녀양육 상담, 사회문화적응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현재 2009년 100개소에서 내년 140개소로 확대되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사업,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취업교육, 자조집단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사회적 대책

다문화가정이 증가되는 교육현실에서 그들을 위한 일반가정 출신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의 변화와 수용은 불가피하며 다문화가족의 학생들 역시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성취와 학교적응을 위하여 원활한 관계 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에서의 다문화정책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오은순(2008) 등은 사회과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지원방안 연구에 대해 교육사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이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6개 국가의 다문화교육의 선례들을 고찰하였고, 국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실태와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연구 경험자, 교육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다문화교육 지도경험의 응답자의 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지도대상은 주로 초등학생들이었으며, 주제로는 다양성과 정체성 등을, 교수학습목표로는 타문화 이해와 존중 및 인권/인간의 존엄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다문화 가족에 대한 독서치료적 접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 대책으로서의 독서치료

김경란(2007)은 다문화 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대상어린인들이 자아정체감 형상에 큰 혼란을 겪고 언어문제, 사회적 편견으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속적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학급이 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이 실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한국문화 인지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지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지지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견없는 사회적 환경제공과 체계적 언어교육 체제 및 심리정서적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있다. 또한 이미 부적응하고 있는 자녀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명희(2009) 역시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존감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인식와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존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존감 학업적 자존감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이중언어 그림책의 필요성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와 주류사회 언어의 자유로운 구사는 오히려 인지적 혜택과 문화적 혜택을 가져 높은 학업성취와 상관될 수 있다. Zhou(1997)와 Fernandez 와 Nielson(1986)는

미국의 전역에서 여러 연구결과 Hispanic과 European 고교생들 사이에게 영어와 부모의 모국어 등 이중언어에 모두 능통한 것이 학업적 성취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Schon(2004)는 이중언어로 된 그림책 출판이 이중언어습득의 좋은 창구가 되는 효과를 겨냥하여 이중언어로 출판된 그림책을 선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의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국어의 발달이 선행되어 제2언어로서의 이중언어발달은 유아들과 다문화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이중언어효과를 줄수 있다는 장점을 잘 시사한다.

Agostos (1997) 역시 이중언어 도서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서고에 비치되어 있어 아동들이 자신의 큰 자원이 되는 이중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만큼 그들의 민족적 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높여주는 대안이 또 있을까?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삶이요 문화이며 호흡이므로 그들의 언어와 한국어로 병행된 그림책을 이용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존감 높이는 그들의 인격을 가장 잘 높여주는 접근으로 보여진다.

이중언어 그림책을 이용하여 늘 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 그들의 외국인 부모와 자녀를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어머니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유아가 엄마의 모국어 설명과 충분한 의사소통의 장을 열어 자신의 언어적 제한과 문화적 제한에서 벗어나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호흡할 수 있는 심리적 산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중언어 그림책을 활용한 학교와 부모-자녀간의 긴밀한 상담과 치료적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King, Vidourek, Davis, & McClellan, 2002)

3. 자존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의 효과

황범주(2008)는 국내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교육정책, 교육소의 방지 교육정책, 인적자원 개발 교육정책의 3가지 영역에서 분석 검토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적응성과 정체성 심어주기, 이들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시행하기, 우리모두에게 공동체 의식 고취시키기, 다문화자녀의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 및 그들의 문화 언어를 수용하고 개발하는 교육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상담자와 멘토 활용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시행 대상을 미취학 유아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중언어적 자원개발과 학교적응을 위한 통합적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Runhaut(1997)은 다문화가족아동의 성공적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가족응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는데,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의 적응은 긴밀한 가족관계와 학업성 성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아 높은 학업적 성취를 내면화시켜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Velez와 Ungaemack(1995), 그리고 Landale과 Oropesa(1995)는 그들의 연령이 높아갈수록 부적응현상이 높아지는 이유를 주류문화동화와

부모의 통제의 반비례현상과 학교/교회참여율의 감소와 마약사용의 반비례 현상을 빚고 있다고 보고 그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이 오히려 그들의 정체감에 많은 혼란을 빚을 수 있음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주아동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되는 학교 적응이 주류사회의 정체감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가정에서 민족적 정체감을 유지하는 일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시사이기도 하다(곽금주, 2008, 재인용).

정신과 의사인 미실다인(2006) <몸에 밴 어린 시절>의 부정적 정서가 삶의 후기에 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통해 밝힌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강압, 과보호, 징벌, 성적 자극, 방치, 거부와 같은 행동은 성장한 후에는 물론, 그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되므로 어린 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개념의 ‘내재적 과거아’(inner child of the past) 이론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상처와 부정으로 일관되게 경험된다면 그것은 결국 이들 자녀의 미래에 바람직한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예방과 조기 치료적 차원에서 독서치료적 접근은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높여 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한 어린시절을 경험을 위해서는 마음의 치료와 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장혜순(1998)은 그림이야기책을 통한 유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의 독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유아의 내적인 요인(기질,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외적인 요인(사회, 경제적인 환경,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치관, 학교환경, 인간관계 등)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 복합적인 원인(스트레스의 축적, 긴장의 정도)에 의하여 일어나며, 그에 대한 치료와 해소 및 대처 방법으로서 그림이야기책을 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이야기책을 통하여 다른 유아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주인공과 동일시함으로써 두려움과 스트레스, 억압 등을 해소할 수 있게된다고 본다.

이재연(2001)은 유/아동들의 외모, 신체, 자존감,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독서치료라는 새로운 상담기법과 치료적 대인으로 유/아동의 발달상의 문제나 적응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독서치료의 적용방법과 그 전망에 대해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치료적 도서를 선정할 때는 읽는 내용에 아동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상담자나 교사/또는 부모가 아동에게 소리내어 읽어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읽어주기 방법은 아동과 상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쌓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도 하다고 말한다. 책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주류 문화를 해결하고 동화하며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좋은 사회적 적응매체로서의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창호(2006)는 인지적 결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 특히, 감정이나 사회적 의미를 지닌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함을 나타

내거나 의사소통의 규칙을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없다면, 인지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에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독서치료적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내의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여 자칫 언어지체와 인지 지체로 오판되는 현실속에서 경도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통한 구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 주의집중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킴으로 인지발달 및 기초학습기능에 도움준 본 연구는 상당히 유효한 자원이 된다. Watson(1994)의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Hynes-Berry(1994)의 독서치료 4단계를 토대로 전체 33회기를 1회기마다 40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결과 아동이 교사의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화책을 스스로 읽고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였고, 색(COLOR)인지하기, 신체부분, 수세기의 영역을 중점을 두고 동화책을 읽고 난후에 관련활동을 한 결과 사후검사는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인지발달의 변화에도 효과가 있었다. 사후검사결과 발달연령분포가 1년이 높게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기초학습기능검사결과 발달연령분포가 3개월이 높게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일반아동이 아닌 대상은 발달장애아동인 것을 감안 한다면 기초학습기능의 발달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박경애(2006)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태도와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그림책 관련 토의 활동 및 극화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독서치료의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만 4, 5세 유아 중 동생과 친구문제로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아 74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문제 설문지'와 '유아용 정서지능 평가도구'를 사용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효과적이었으며 연령과 관계없이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정서지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어머니의 모국문화와 모국어를 사용하다 교육기관에 와서 한국어어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발달적이고 정서적이며 심리적 위축감을 그림책을 이용해 독서치료적으로 접근할 때의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기영(2005)은 대전 D 초교 3학년 G초교 5-6학년생 각각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정종진(1996)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한뒤 자아개념에 도움을 주는 책을 선정하여 14-21주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개념 및 총자아 긍정의 점수가 향상되었고 아동의 자신감 향상으로 흥미위주 독서태도와 학습위주의 독서태도에도 향상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개인독서치료보다 집단독서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멘토와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방적/치료적 접근이 독서치료의 효과를 잘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다문화가정은 이제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우리의 이웃, 친구, 사회구성원, 국민으로서 그들

과의 상생은 글로벌타운 한국으로서 늘 직면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관련자만의 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좀 더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시기적절하며 예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과 대안이 대두된다.

그에 대한 부응으로 우리는 독서치료라는 새로운 심리상담 및 치료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개인의 심리정서를 돌보고 회복시켜주며 위축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대책이 사회적으로 더 보편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제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기초적 실험연구를 통해 그들이 한국에 더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독서치료적 접근이 일회성이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 프로그램 교육/보육과정에 접목되어야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수용 증가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와 국가적 정책으로서의 다문화 가족의 교육, 복지, 혜택, 의료 등의 혜택을 늘리는 사회적 붐이 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종훈(2000). 초등학생의 자존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대 석사논문.
- 고유미(2009). 다문화 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신여대 석사논문.
- 곽경화(2000).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인제대 석사논문.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 곽준혁(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미국: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126-144. 한국민족연구원.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석사논문.
- 김경아(2005). 초등학생의 우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충남대 석사논문.
- 김명희(2009).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대 석사논문.
- 김미선(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대. 석사논문.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 김혜진(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 모선희 외(2009).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2008-2.
- 문용린(2008). 한국의 이주가정 청소년 현황과 과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무지개청소년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 박사논문.
- 박경애(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2(2). 17-46.
- 박명선(2006).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겨울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국제여성 이주여성어 실태조사.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신창호(2006). 독서치료를 통한 경도발달장애아동의 인지발달에 관한 연구독서치료연구 2(2). 99-128.
- 신혜정(2007).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1-15. 카톨릭 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오은순 외 (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방안연구. KICE. 연구보고 RRI 2008-5.
- 윤희원 외 (2008).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GOVP1200941432.
- 이영주(2008). 다문화 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 복지학, 13(1). 79-101.
-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재연(2001).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치료와 적용과 전망. 兒童研究 15(1).
- 장혜순(1998). 그림이야기책을 통한 유아들의 스트레스 해소.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6(1).
- 정윤주(2004). 또래 관계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5.
- 정현영(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
- 조옥라 외 (2006).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연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조현성 박영정 홍기원 (2008). 이준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GOVP1200818782.
-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
- 행정안전부(2006). 국제결혼이주자 자녀수. 전국 거주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부 자치행정과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2006). 국제결혼이주자수.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 200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부 자치행정과 통계자료
-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08. 6.).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구용역 사업 2008.
- 홍진주(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황범주(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 박사논문.
- Agosto, D. (Aug., 1997). Bilingual picture books: Libros Para Todos. *School Library Jr.*
- Fernandez, R. M & Nielson, F. (1986). Bilingualism and Hispanic scholastic achievement: some baseline result. *Social Science Research* 15. 43-70
- Landale, N., & Oropesa, R. S. (1995). Immigrant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immigrant: inter and intra-ethnic group differences in the US. PRG Research Paper 95-2. East Lansing: Institute for Public and Social Research, Michigan State University.
- King, K. A., Vidourek, R. A., Davis, B., & McClellan, W. (2002). Increasing self-esteem and school connecteness through a multidimensional mentoring program. *Jr of School Health* 72(7). 294-259.
- Mahalik, J. R., Pierre, M. R., & Wan, S.S.C. (April(2006). Examining racial identity & masculinity as correlates of self-esteem & psychological distress in black men. *Jr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94-101.
- Oliver, J. M., & Paull, J. C. (July, 1995). Self-esteem and self-efficacy perceived parenting and family climate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Jr of Clinical Psychology* 51(4). 467-481.
- Runhaut, R. G. (1997). The new California: comparative research findings on the educational progress of immigrant children. In R.G. Runbaut & W. A. Cornelius(eds). California's immigrant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 for educational policy 17-70. La Jolla: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 of California, San Diego.
- Shon, I. (Sept. 1, 2004). Bilingual books: celebrations vs. confusion. Booklist.
- Velez, C., & Ungaemack, J. (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drug use among Puetto Rican youth: Generational status differences. *Social Science Medicine* 40. 91-103.
- Verkuyten, M. (2001). Self-esteem among Dutch and Turkish children in the Netherlands. *Jr of Social Psychology* 129(2). 269-271.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63-95.